

“다보스포럼 못지않은 DMZ포럼 계획”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얼마 전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사적인 내용과 공적인 견해를 두루 담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연구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부터 최근 이슈가 되는 ‘광화문 광장 관련 이야기’까지 생각을 적었다. 그는 정책이,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정책은 ‘다수’의 행복을 좇는 것이라 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의 방향과 그 길을 함께 비춰나갈 경기연구원의 역할과도 맞닿는다. 이한주 제13대 경기연구원장은 “현재의 다수가 아니라 역사적 다수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역사적 다수를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포폴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도 좋다. 그들은 착한 포폴리스트”라고 말했다.

올해 질적인 연구생산성에 집중 도 등과 협력 정책생산성 높일 것

-지난해 취임 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 2019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경기연구원장으로 온 이후 행감, 예산 등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연이 조금 더 생산적인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적인 생산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연구원들에게 부담이 됐던 것 같다. 양적 지표로 보면 서울의 2.5배 정도다. 올해는 질적인 연구생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인 평가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한다. 경기연이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연구원들의 학술논문도 지향하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갈 생각이다. 또한 도내 농업 생산이 전국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데, 농업이나 수산업분



야 연구를 맡을 연구원이 없다. 이번에 이런 분야의 연구원들도 충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감에서 경기연과 서울연구원의 보

고서 정책반영 비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서울연구원은 정책반영 비율이 80%이고, 경기연은 절반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었다. 경기연 연구가 쓸모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했다.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다. 정책반영 비율 통계를 낼 때 서울연구원은 시에서 요청한 연구만을 모수로 잡았고, 경기연은 도가 요청한 연구와 자체 연구를 모두 모수로 잡았다. 자체적으로 다시 통계를 대 보니 80%대로 나왔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조직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게 됐다. 경기연은 정책반영 비율을 보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물었다. 연구한 내용이 정책의 법률, 조례, 행정지침으로 반영됐는지를 연구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연구를 의뢰한 사람에게 확인하는 게 올바른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연이 조직적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학문적 독립’을 요구한다. 연구 분야가 도정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연은 학문적 독립이 어렵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연

구하고 분석하는 기관이다. 정책이 나아가 갈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 정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경기연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정책연구 외에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보고 싶다. 경기연 경영평가 등급이 B등급이더라. 대체로 산하기관들이 B등급이지만, 경기연이 A등급을 받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정책을 연구하면서 경영평가를 나쁘게 받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러 산을 넘는 과정을 걷고 있다. 경기연이 도정과 협업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남북평화협력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일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 4월 27일에는 파주~개성 평화마라톤이 예정돼 있다. 오는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큰 규모 사업들이 준비 중인데 경기연은 국제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DMZ는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적 장소다. 국제적 평화와 생태와 관련해 다보스 포럼 못지 않은 국제포럼을 기획 중이다. DMZ를 가보면 GOP 근무자 순찰로가 철책을 따라 연결돼 있다. 그 보다 좋은 길이 어디 있겠나. 남북평화협력에 대해 경기도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사실상 군대 없는 국가다. 경기도가 잘 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오정인기자

“무한 잠재력 품은 DMZ 세계 유일 관광지로 개발”

2019. [인터뷰 /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냉정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을 자리매김하겠다.”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은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공사의 위상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광도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기도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31개 시·군의 관광정책과 목표, 예산, 주력관광지 등 정보를 파악해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7기 도정가치인 ‘공정한 세상’은 관광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관광업계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경기도 여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사는 세 자녀 이상 직원들에게 1인 1시간 근무시간 단축과 시간외 수당 10% 추가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내부 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유 사장은 “관광활성화도 인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의 출산장려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저출산 문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남북평화교류 협력 무드에 맞춘 경기관광공사의 역할과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세계 유일의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독개다리, 임진각평화누리 캠핑장, 캠프그리브스 등 우리만의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시대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더 큰 미래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경기도 관광의 현 주소를 보면 장단점을 모두 품고 있다”면서 “지난해 서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이 1400만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경기도를 찾아 1박이나마 체류하지 않는다는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25일 사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관광공사 중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기관광공사

스처가는 경기도 아닌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것이 문제다. 경기도를 스처간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이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사장은 “도내 시·군과 함께 경기도만의 관광 브랜드 개발, 숙박 시설 확충, 홍보프로그램 제작,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그랜드세일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공사는 팀장 아래 ‘파트장’을 두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 조직 강화에 나섰다.

유 사장은 “조직화합과 성과에 따른 인재등용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중점을 뒀다. 명확한 책임과 권한, 보상 체계로 직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유 사장은 “2002년 설립됐으니, 공사도 이제 성인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 더 이상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익구조 다변화, 직원 개개인의 전문조직화, 미래가치가 분명한 관광상품 집중 육성 등을 통해 3년 내 흑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기자 jis3885@incheonilbo.com